

저소득층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전주시보건소,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의료급여수급자… 시술 비급여 항목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이어 날아 기르기 좋은 화경 만들기 위해 나선 전주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이달부터 기준중위 소득 130%이하(2인 가족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만2,929원, 지역가입자 12만6,353원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을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데 따른 조치다.

기준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해 인공수정은 20~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00~300만원까지, 동결화이는 30~1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해왔으나, 건강보험료 적용되면서 모든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행위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은 기준 약 359만원(2016년 평균)의 30% 수준인 약 102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난임시술비용 부담 완화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



돼지코에서 홍삼 가래떡이? 19일 진안에서 홍삼축제가 열린 가운데 부대행사로 염기홍삼가래떡 뽑기가 진행됐다. (관련기사 9면)

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나 국제결혼자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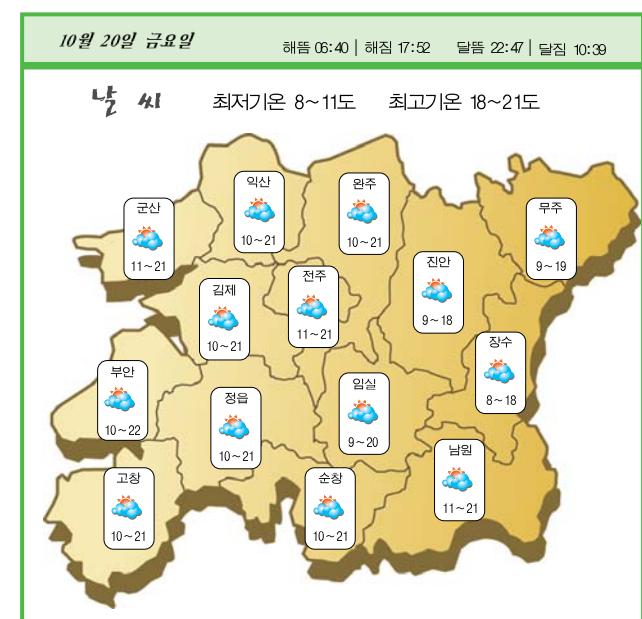
난임부부는 전국 어디든 본인이 원

하는 정부지정 난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전주지역 정부지정 난임 의료기관은 체외수정의 경우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한별여성병원, 새린산부인과, 진산부인과 5개소이며, 인공수정은 위의 5개소와 솔빛산부인과, 한나

여성병원, 미르피아여성병원을 포함한 8곳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및 모자 걱정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1~2, 62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기자



전북대, 고교 방문 정보 · 진로탐색 설명회 '호응'

전북대학교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일선 고교에 교수와 대학생들이 직접 찾아가 모험·창의인재 아카데미 및 진로탐색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실시된 모험·창의인재 아카데미는 도내 25개 고교를 대상으로 14명의 전북대 교수진들이 직접 방문해 12월까지 인성과 창의, 모험과 리더십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군산중앙고교에서 첫 아카데미를 개최한 전북대 간호대학 정석희 교수는 '사랑하는 나의 후배들에게 끌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 교수는 이날 학생들의 진로문제와 고민을 직접 경청하고 자신의 경



험과 지식·지혜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학생들과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훌륭한 감동을 선사했다.

설명회에는 전북대 15개 학과(부)의 멘토 재학생들이 고교를 방문해 멘티(후배) 학생들과 전공과 진로 등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여종문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의식과 인성, 리더십과 창의성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오늘 전북 학생통계활용대회 열려

1차 통과 51팀 130여명 참가… 직접 제작한 통계포스터 발표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분석해 제작한 통계포스터를 발표하는 전북 학생통계활용대회가 20일 오후 1시부터 전북과학고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1차 심사를 통과한 초·중·고 학생 51팀 130여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이날 직접 제작한 실물 통계포스터를 앞에 두고 내용에 대해 발표한 뒤,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받는다.

전북 학생통계활용대회는 도내 초(4~6학년)·중·고 학생들이 직접 통계포스

터를 만들어 봄으로써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커지고 있으나 학생들이 통계작성이나 분석과정 등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 대회는 학생들이 통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학탐구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도내 103개 초·중·고 미래형 창의융합 과학실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총 30억원을 투입해 도내 103개 초·중·고등학교에 미래형 창의융합 과학실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총 24억원을 투입해 도내

496개 학교의 노후된 밀폐형 시약장 교체도 지원한다.

19일 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Mobile) 등 지능정보기술의 급변화에 따라 탐구와 참여 중심의 공간과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가능한 미래형 창의융합 과학실 구축에 3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당 3천만원을 지원해 전자교탁, 스마트TV, 3D프린터 등 4차 산업에 대비한 첨단과학교육 기자재 구입 등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총 24억원을 투입해 모두 496개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밀폐형 시약장 교체를 지원한다.

/정해은기자

26일 전북교육아카데미 박재동 화백 특강

박재동 화백이 전북교육아카데미에서 특강을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재동 화백은 28일 오후 7시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박재동 화백이 끌려주는 교육아이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북교육아카데미는 박 화백이 경험한 학교 현장과 교육 철학을 전북도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박재동 화백은 시사언론화기자부

천국제민회축제 운영위원장은 맡고 있다. 저서로는 *심시일본*, 박재동의 *손비단 아트*, 박재동의 *실크로드 스케치 기행*, *인생민화* 등이 있다.

전북교육아카데미는 전북교육청이 매월 1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특강 신청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parents.jbc.go.kr>) 및 스마트폰으로 하면 된다.

/정해은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주최 전라북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OREA TOURISM ORGANIZATION Arts Council Korea IUIN 일진그룹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축첨	로비
명사서예전	갤러리 S
생활서예전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강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의 만남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현봉 최수길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전북우수활동가서예전	갤러리 I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학술대회 - 10월 22일	세미나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전북 예술회관 기념공모전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전	
강암 송성용전	